

### “최소한 울타리 만들어 달라”

광주지역 발달장애인 부모들 국민청원  
주간활동 시간 확대 등 대책 마련 촉구



최근 발달장애 청년과 어머니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광주지역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자신들의 구구절절한 사연과 함께 국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발달장애인 청년과 그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대통령님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으로 광주 발달장애인 부모들 일동 명의의 글이 올라와 있다.

이들은 “발달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들이다. 이렇게 글을 쓴 이유는 우리들의 삶을 들려드리기 위해서다”며 “이런 글들이 대통령님을 포함해 여러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또한 국민의 한 사람이기에 이렇게 글을 올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발달장애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1996년 광주에서 한 아이가 축복 속에 태어났다. 하지만 이런 축복과 행복도 잠시 자녀가 발달장애 판정을 받았다. 우여곡절 끝에 12년 특수교육을 마치고 청년이 돼 사회로 나오게 됐다.

부모 일동은 “아이가 청년이 돼 사회로 나오게 되면서 어머니의 전쟁은 시작된다.

발달장애 청년에 대한 지원은 온전히 어머니의 몫이기 때문이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어머니는 심한 우울증을 겪게 되지만 이것에 대해 치료하고 치료하는 것마저 사치인 삶으로 바뀐다”고 전했다.

부모 일동은 “망치 않은 인프라지만 그마저도 코로나 19 사태가 삼켜버렸다”며 “결국 어머니는 해결책이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유일한 선택지인 정신병원에 끊임없이 밀려드는 죄책감을 뒤로하고 자신의 소중한 분신을 입원시킨다”고 말했다.

아이없는 하루하루가 결코 편하지 않았던 어머니는 도저히 그곳에 자녀를 둘 수 없어 집으로 데려왔다. 결국 지난 3일 새벽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부모 일동은 “대통령님, 이러한 발달장애인 가족의 삶이 특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라고 질문하면서 “저희도 모두 같은 생각을 한번쯤 했었기에 이 소식을 듣고 울고 또 울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어느 미친 부모가 자신의 자녀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느냐고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나고 말하겠지만 그런 상상을 수시로 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다”며 “저희는 이런 현실이 너무나 두렵기만 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내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사회의 울타리에서 내쳐져 거리에서 방황해야 하는 삶을 살지도 모른다

는 불안감은 어찌야 하는지요”라며 “졸업 이후 갈 곳이 없어 변변한 서비스조차 받지 못하고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보호시스템 속에서도 중증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고 설명했다.

부모 일동은 “20만 발달장애인의 삶을 위해 대통령님에게 혹은 국가에게 내 자녀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라고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며 “발달장애라는 것이 병이 아니기에 약을 먹고, 병원 치료해서 낫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기에 대통령님께서 페이스북에 언급하셨다시피 발달장애인 부모는 자식보다 하루만 더 사는 것이 소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2007년부터 약 10년의 세월을 거쳐 발달장애인 법이 만들어졌다”며 “저희는 높아가고 있는데 아이들의 힘은 점점 세어지고 좁은 집안의 세상은 답답하다고 몸부림 치고 있다. 이에 우리 자녀들이 동네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울타리를 만들어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중증 발달장애인들을 위해 주간활동 1대 1 지원을 부활시켜줄 것과 하루 낮 시간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시간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중증의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고, 일상적 발달장애인 가정의 육체적, 정서적 짐을 위한 지역별 발달장애인 주거체험 센터를 설립해 줄 것과 장애인가족을 위한 장애인가족지원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체계 마련 등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국민청원에는 현재 8319명이 동의했다.

오유나 기자

### 구례군, 정신질환 등록회원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

매주 2~3회 공예요법·운동요법·음악요법 등



구례군은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보건의료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주간재활프로그램을 2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재가 정신질환자 등록회원이 참여할 수 있다. 매주 2~3회 지역사회 적응과 복귀를 위한 일상생활훈련,

사회기술 및 적응훈련, 여가활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프로그램 장소의 방역소독을 마쳤으며 주간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회원들은 손 소독, 체온측정, 마스크착용 등의 예방 수칙을 지키면서 프로

그램을 운영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전문 강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공예요법, 운동요법, 음악요법, 약물교육, 사회문화체험 등이 있다.

구례군 관계자는 “주간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정신질환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하겠다”며 “다양한 요법을 통한 활동과 성과물로 성취감을 높이고 사회성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군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조기발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우울증·스트레스 상담 및 검사, 정신질환 조기검진, 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한다.

구례=박진호 기자

### 화순군, 요양시설 대상 ‘찾아가는 결핵 검진’

화순군이 결핵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오는 9일과 10일 소향원 등 노인요양시설 5곳에서 ‘찾아가는 결핵 검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결핵에 취약한 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290여 명이 대상이다. 대한결핵협회의 결핵검진 차량과 이동식 검진 장비를 이용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까지 원스톱 검진을 지원한다.

특히, 흥부 엑스선 영상을 실시간으로 현장에서 원격 판독해 엑스레이 유소견자와 기침 등 증상자의 가래 채취를 진행한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검진 요원의 체온측정, 마스크 방역 글러브 착용, 검진 대상자의 체온측정, 검진 전 손 소독, 검진차량과 장비의 상시 방역 등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할 방침이다.

화순=박순철 기자

### 영암군 “어르신 코로나 불안 제로화”

경로당 방역·소독 실시

영암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임시 휴관했던 경로당 운영 재개를 앞두고 관내 443개소 경로당의 내·외부 청소 및 일제 방역 소독을 실시한다.

전문 방역업체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이번 방역소독은 경로당 내부 생활시설과 주방, 화장실, 휴게실 등 부속시설에 대해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여름철에 접어들어 발생이

우려되는 유해 해충을 박멸하여 각종 전염병으로부터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해 실시되며 6월 중순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어르신들이 자주 사용하는 문손잡이, 집기 등에 집중 방역 소독과 살균 소독을 실시하며 그동안 휴관으로 경로당 내외부 곳곳에 쌓인 묵은 먼지를 제거하여 쾌적한 경로당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영암=조대호 기자

# 소통하는 대한민국

## 그 중심에 1등 보성군

농산물 지리적표시 제1호

### 보성녹차

수산물 지리적표시 제1호

### 벌교꼬막

전국 최대 주산지

### 보성키위

## 보성몰

집에서 청정 보성의 우수농특산물을 만나보세요!

mall.boseong.go.kr 보성몰 검색

유튜브 구독하고 댓글 달면 보성녹차를 얻을 수 있다고?!

보성군 대표 SNS 가입하기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eenboseong/>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boseonglove>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greenboseong/>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N2Y1YUyYkSbhc69PqCpQy>

※ 매달 추첨을 통해 보성군 페이스북에 당첨자 게시를 합니다.